

책머리



River & Culture

하천에 물을 돌려주자



이 봉희 | 우리협회 부회장,
취임안 수력·수자원본부장
(bhllee@samaneng.com)

책머리 글 하나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런 것은 무언가 나름대로 하천에 대한 철학을 가진 중량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라며 사양했지만 협회의 강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몇 자 적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벌써 물쟁이 원로(?)로 취급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쓰름하기도 했지만 평소 하천에 대해 느낀 점을 감히 몇 마디 해보고자 한다.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운이 좋게도 집 옆에 개울(함양위천)이 있어 여름날이며 먹을 감다가 큰 바위에 큰 대자로 누워 몸을 말리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물침을 알몸으로 받기도 하고, 겨울이면 직접 만든 썰매의 성능을 친구들과 서로 겨루기도 하고, 쥐불놀이도 하며, 족대로 고기를 잡던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같이 신나게 노는 위락의 장소이기도 했다. 큰물이 나면 폭방을 넘칠 듯한 황토물의 포효소리에 무서운 강이기도 했지만,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혼자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며 서럽게(?) 울던 위안의 장소이기도 했다. 사춘기 시절엔 징검다리 건너 사는 단발머리 여학생을 만나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별빛 아래 아폴리네르의 미라보다리를 읊고 헤세의 데미안을 이야기하던 둘도 없는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골뜨기인 나에겐 그때 하천은 언제나 당연히 옆에 있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특별하게 의식하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했든가, 도회지로 나와 사회생활에 들어서면서 첫 보직이 물과 관련된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30여년을 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수 때는 밥집을 설쳐가며 다투기도 하며, 그놈의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아보자는 건방진 생각도 많이 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황폐해진 하천을 되살리고자 하천환경사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노는 하천이 아까워 뱃길을 만들어보고자 돌아가지 않은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던 때도 있었다. 어찌되었던 대동강 물을 통째로 팔아먹은 봉이 금선달 만큼 떼돈은 못 벌었지만 하천 일로 그러저럭 먹고사는 금선달은 되었으니 물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으면만 물은 아직도 어렵고 두렵기만 느껴진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 홍수를 막고자 했지만 아직도 홍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양의 수자원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부족이라고들 한다. 최근 들어 이곳저곳에서 하천의 모습을 새로이 복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어릴 적 뛰놀던 기억속의 하천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무언가 한계에 부딪친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하천을 쳐다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천과 더불어 살지 않고 우리 위주로 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홍수가 꼭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섭리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수자원의 집중대량개발-집중공급방식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물의 건전한 순환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천환경도 마찬가지다. 저수로를 약간 곡선형으로 변형을 주고, 자연적으로 호안을 치장하고 물고기를 위한 어도를 설치하고, 둔치는 운동시설을 만들거나 초화류 등을 심어 이쁜 산책로를 만든다. 우리 인간이 그려낸 인위적이고 다소 획일적인 그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두 번의 홍수를 겪고 나면 저수로는 스스로의 물길에 밀려 호안이 떠나려가기도 하고 어도는 공중에 봉 떠있는 물도 흐르지 않는 흉물로 남는 경우도 많다. 공 들여 심어 놓은 초화류는 이내 그 지역 우점종에게 점령당하고 만다.

하천은 자연이고 하천의 존재가치는 물이 흐른다는 것이다. 물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필요하면 갈대밭의 습지도, 하얀 백사장도 만들어 간다. 하천은 자기에게 맞는 꽃, 나무를 자라게 하고 가끔은 그 개체수를 조정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천이고 곧 살아있는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맑고 풍부한 물이 흘러주어야 한다. 흐름도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닌 어느 때는 많이 흐르고 또 어느 때는 다소 적게 흐르기도 하는 변화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하천은 어느 때부터인가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비가 며칠만 오지 않아도 이내 말라버리는 하천도 많다. 고향의 시골하천도 마찬가지다. 사람 수도 줄었고 논밭도 점점 줄어들었는데 그 말뚝 하천물이 어디로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물은 하늘에서 비로 내려와 증발산, 침투, 유출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온다. 지하수위도 예전 같지 않다 하니 땅속으로 없어진 것도 아닐 터이고, 너무나 우거진 관목 산림은 녹색댐이 아니라 대량 증발산 생산기지가 된 것은 아닐지? 아님 우리가 취수해서 많이 사용하기만 하고 제대로 하천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아서 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은 순환하면서 자연스럽던 평형을 이루는데 지금의 하천 건전화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우리에게 의해 그 순환과정 이 차단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은 황량한 공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량이 먼저 복원되어야 한다. 일부 하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수처리수나 본류 하천물을 펌핑하여 인위적으로 흘려주기도 하지만 그 또한 정상적인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천의 유량이 적어진 원인을 면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물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물을 이용하지 않을 순 없지만 수자원 개발은 물론 개발사업 등에도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천수리권의 조정 또는 국가에서의 매수도 검토하여 하천으로 물을 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천공간만의 하천환경이 아니라 물을 원래대로 하천에 돌려주는 개념의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하천의 자연 기능 복원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만 있으면 하천은 가장 멋진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씀도 있듯이 물은 주위의 모든 것에 이로움을 줄 뿐이니 그 물이 항상 흐르면서 우리 인간뿐 아니라 만물 생태계에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하천관리 과제라고 생각한다.

물쟁이다 보니 좌우명 같은 것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을 항상 옆두에 두며, 집 거실에 걸려있는 만해 선생님의 유수인생(流水人生)이란 휘호를 보며 흐르는 물과 같이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 역시 물은 어려운가 보다.....